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한 지 윤

2007년 2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제출자 한 지 윤

한지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감사의 글

박물관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디고 벌써 6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 나태한 나를 자극하는 큰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일과 논문 작업을 병행하기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보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쁜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공허해지겠지만 언젠고 또 이 공허함을 배불리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안일한 생각과 부족한 능력 탓에 벽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생생히 느껴지는 아이들의 천진무구함이 제겐 큰 에너지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 의지와 계획과는 다르게 시간을 재촉하다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논문이기도 해서 선뜻 내밀기가 조금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노력이라 여기고 잘못된 부분은 세심한 지적으로, 또 잘된 부분은 칭찬으로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시간을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논문 지도를 해주신 김동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진영일 교수님, 권인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의 일들이 겉으로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일 같지만 항상 분주히 많은 일들을 해내는 박물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 좋은 일들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올 겨울 운명을 달리하신 사랑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삶의 원천인 부모님과 가족들, 항상 예민해져 있는 나에게 정성어린 위로와 배려, 안정을 준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문 초록>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지 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동 전

오늘날의 박물관은 소장품과 전시물을 통한 관람으로 이루어지는 ‘전시’ 위주의 개념에서 직접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만족하는 ‘체험’과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박물관 교육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00여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미미하나마 약 10년 전부터 일부 박물관·미술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오다, 최근 들어서는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해 주말 여가 활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기관인 박물관·미술관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교육계 주5일 수업제의 실시와 함께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문화행사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에 부합하는 교육이념과 전문적인 교육부서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하였으

* 본 논문은 2006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며 이를 현재 제주지역의 고고·역사박물관인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적인 방향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준거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를 토대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관리과, 학예연구실로 이원화된 부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전문부서를 편제하고 박물관 교육 전문 인력인 에듀케이터(Educator) 배치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국립제주박물관의 현재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타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거듭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주지역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를 좁혀나가고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전시물을 활용한 통합적 감상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 웹 기반 교육프로그램, 전문 교육 연구소 연계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제주박물관이 중심축이 되어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및 학교,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에듀케이터 외에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교수 학습 능력을 지닌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어린이를 위한 전시, 체험공간을 점차 확충해나가고 관람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계층을 다양화한 교육

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는 사회교육관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일회성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현황과 실제	4
1.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6
1)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사	7
2) 국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10
3) 국내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17
4) 전문 연구소를 통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31
2.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현황과 문제점	35
III.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39
1.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현황	39
1)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	40
2)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43
3) 발전 가능성 연구	52
2.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54
1) 교육 전문 시스템 구축	54
2) 다양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9
3) 제주박물관 중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	74
4) 우수강사 발굴 및 DB 구축	76
5) 전문 교육 공간 확충	78
IV.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7

표 목 차

<표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분류	9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18
<표 3> 국립중앙박물관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현황	20
<표 4> 국립중앙박물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현황	22
<표 5> 삼성어린이박물관 상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26
<표 6> 삼성어린이박물관 특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26
<표 7>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28
<표 8>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30
<표 9>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31
<표 1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 구성도	41
<표 11> 국립제주박물관 조직구성	41
<표 12>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환경 분석(SWOT)	42
<표 13> 박물관 전시실 탐험 구성내용	46
<표 14>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50
<표 15>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51
<표 16>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인지도	52
<표 17> 문화행사 참여의향	53
<표 18> 선호하는 문화행사	53
<표 19> 주요 박물관·미술관 교육관련 부서현황	58
<표 20>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사이트맵(Sitemap)	68

그 립 목 차

<그림 1> 박물관 전시실 탐험 활동북	47
-----------------------------	----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개방화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로 동반 성장 기틀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평생학습 도시 조성 운동 전국 확산을 중심으로 한 중점 목표가 등장한다.

2006년도 8월부터는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65개 대학 및 평생교육 시설, 전국 12개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주말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주5일 근무의 정착 및 주5일 수업의 본격화 등으로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평생교육이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은 비공식적인 학습 환경 혹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공한다. 박물관 교육의 특성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간접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박물관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적 개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주5일근무제·교육계 토요일휴업일의 실시와 국민들의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경험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박물관이 이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오고 있으나, 규모나 운영의 문제에서 특정 지역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박물관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며 역사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주제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외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박물관의 경우는 직접 교육프로그램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국내·외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자료와 참고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하였다. 박물관 선정은 국외는 현재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국내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중 비교적 체계적으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로, 국내·외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현황을 알아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국립제주박물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현재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여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점 진단, 발전 가능성 연구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념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뮤지엄(museum)에 대한 번역은 박물관 활동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사용하였고, 어린이의 대상 범위는 6세부터 13세까지로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현황과 실제

박물관은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수집·보존·조사·연구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 과거의 박물관은 전시의 기능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현대의 박물관은 전시 외에 박물관 교육이라는 새로운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2000년에 발표한 「국립지방박물관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내용 중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은 21세기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박물관은 사회교육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의 강화는 시설, 인력, 예산 등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교육관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으나, 사회교육요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확충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은 박물관 경험과 박물관의 교육적 잠재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총체적인 목적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전시물, 즉 인간 경험을 문화적 맥락, 시간과 공간상의 위치에서 모색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을 종합하고, 의견을 형성하며, 미적 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은 교육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

2)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p.23.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립지방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0, pp.67~68.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물관 현장이 학교 현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보인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신념, 지식 및 태도와 같은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이란 현재와 미래의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을 이용하여 교육적, 정서적, 그리고 나아가서 여가활용과 휴식을 위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공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간에 소통작용을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단계로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와 더 나아가서 관람객들의 여가와 복지에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에서는 강연회, 워크샵, 세미나, 전시 안내물, 오디오 가이드 제공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교육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교육전문가를 에듀케이터(Educator)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이러한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이 시작되었고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박물관 교육 전문가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인력활용 수준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교육기간이나 교육 대상의 연령을 한정해놓고 일정한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형태의 단헨 교육이 아니라 소위 열린 교육, 평생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교육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독자적이기 보다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중점을 둔 상호적이어야 하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및 전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물관 교육은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교과서에서 줄 수 없는 실제 자료와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박물관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정도의 현장학습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 교육의 파트너이자 대안교육기관이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활동 영역에 있어서 전시와 관련된 강좌나 교양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박물관이나 유물대여를 통해 대중에게 나아가며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체험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 대상층도 어린이나 가족, 노인층, 소외계층,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 이념, 종교, 계층갈등에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1.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본 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영역 중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은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영역 중 하나이며, 오늘날 박물관이 일반인의 삶의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박물관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박물관·미술관의 선정은 국내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중 교육전문부서를 갖추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국외 박물관·미술관 역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헌자료 조사와 박물관·미술관의 홍보자료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현황 조사를 통해 국립제주박물관의 효율적인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체계,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의 준거자료로 삼고자 한다.

국외 박물관의 사례는 현재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 폼피 두센터 어린이 아틀리에(L'Atelier des enfants du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박물관·미술관 교육이 발달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연구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따라 인터넷에 소개된 박물관·미술관 교육관련 정보 검색을 통해 조사된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국내의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전문부서를 갖춘 국립중앙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몇 박물관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있는 박물관 교육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박물관별 현황 자료는 각 박물관의 팸플렛, 홍보 자료,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실제 교육 프로그램 참관, 교육담당자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1)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사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박물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몇 차례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왕실이나 귀족사회를 위한 수집품의 보관이 주요한 기능이었던 초창기 박물관은 18세기 후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기능을 지닌 공공문화시설로 정의되면서 그 역할이 크게 바뀌게 된다.⁴⁾

국외 박물관 교육의 역사는 루브르박물관이 1973년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 즉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기능을 지닌 공공문화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⁵⁾ 초기의 박물관들이 특정인들의 취미와 흥미를 충족시키고자 한정된 물건들을 수집하여 소장하는데서 시작되었던 것에 반해, 근대에 들어서는 한정된 목적보다는 다양한 전

4) 이보아, 앞의 책, p.217.

5)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논문집』 제1호, 서울, 재원, 1998, p.9.

시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적 목적의 박물관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세기 후반 몇몇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교육적 역할이 일반 대중, 학교, 어린이, 성인, 가족 등의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반면, 우리나라의 박물관 교육은 이제야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외 우수 박물관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적 기반을 다지는 것에 주력해왔다. 미국의 많은 박물관에는 대부분 교육부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 또한 어린이 전시실이 마련되어 학교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교육전시를 하고 있다.⁶⁾ 박물관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박물관을 기준으로 박물관 교육의 출발을 살펴보면, 1954년 서울의 국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제된 「국립경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학교”이다. 이외에도 197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특설강좌’가 진행되었다. 이후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엄마와 함께 박물관’, ‘어린이박물관교실’, ‘어린이현장학습’ 등이 있는데, 이 중 주목을 받은 것이 1974년에 열린 ‘어린이 미술실기대회’이다. 미술실기대회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보고 그리면서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다.⁷⁾

1981년에 교육을 전담하는 섭외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986년에 토요일문화체험교실이 열렸다. 1990년대에는 움직임은 박물관(지금의 찾아가는 박물관)이 개설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계층별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⁸⁾

6)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이난영, 1993, p.35.

7) 국성하,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교육사학과, 2003.

8)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회에서는 ‘박물관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교육학계에서 처음으로 박물관의 교육적의미를 학술적으로 논의한 것이었다. 1998년에 동 회의는 연차 학술대회에서 ‘문화개방과 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의 교육적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1년에는 이 논의를 중심으로 『박물관과 교육』, 『문화개방과 교육』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최초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으로 1995년에 개관한 삼성어린이박물관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체험식 전시 외에도 사진교실, 박물관학교, 영상제작 학교 등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선별하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실시 장소, 형식과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장소에 따라서는 관내 교육과 관외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내 교육은 박물관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말하고, 관외 교육은 박물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⁹⁾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분류¹⁰⁾

구분	내용		비고	
관내	성격	교양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특별봉사교육	오프라인 (offline)	
	대상	나이별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집단별		개인/집단(일반단체, 학생단체) 전문가(미술가, 학자, 교사, 인턴쉽, 전시/안내) 가족 장애인(청각, 시각장애인)
시간	정기적/비정기적	오프라인 (offline)		
형식	감상 - 전시안내, 갤러리토크, 활동지, 오디오가이드, 비디오상영 이론 - 강연, 강좌, 세미나, 심포지움 표현 - 워크샵, 미술실기, 글짓기, 연극, 역할놀이 통합 - 감상과 제작, 체험교실, 박물관 학교 특별행사 - 행사, 축제, 공연(음악회, 연극, 무용공연), 영화상영, 패션쇼			
관외	형식	순회전시/학교대여서비스 학교연계프로그램/답사 프로그램	오프라인 (offline)	
	지역	도시, 농촌, 어촌, 산간, 도서 프로그램		
가상	형식	정보센터 인터넷 전시, 가상 갤러리, 교육용 프로그램	온라인 (online)	

9) 이보아, 앞의 책, p.219.

10) 백 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 예경, 2005, p.121, 재인용.

2) 국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1)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29년 뉴욕시에 건립된 MoMA는 근대의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공공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1880년대 이후 회화, 조각, 판화, 사진, 건축, 산업디자인 등의 작품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의 전 영역을 전시, 교육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욕현대미술관의 목적은 한마디로 ‘시각적 해독력(visual literacy)’을 개발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시각적 해독력이란 “한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사고와 감성을 동반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교과서적인 주입 이전에 작품을 스스로 “시각적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¹¹⁾

MoMA의 교육철학은 관람객에게 근·현대 미술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고 우리 시대 미술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미술관의 교육을 ‘Education’의 입장에서 보며, 이러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미술관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²⁾

교육부서가 제공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 등이 있다. 우선 가족프로그램은 4~14세의 어린이와 그들과 함께 하는 성인이 미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진행 도중과 이후의 토의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이끌어 내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계획된다. 가족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미술에서 정보 및 가치 향상과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미술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갤러리 대담(In the Galleries), 가족 미술 워크숍(Family Art Workshop), 현대예술가들과의 소통(Conversation with contemporary Artists), 가족 영상(Family Films), 온라인 아트 사파리(Art Safari Online)등을 제공한다.

11) 양지연, 「사회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미술관」, 『월간미술』 제8권1호, 중앙일보사, 1996, pp.146~147.

12)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서울, 예경, 2001, pp.148~149

‘갤러리 대담’은 토요일 오전에 5~10세 어린이와 성인 동반자를 위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발한 상호작용 모임이다.

‘가족미술워크샵’은 미술관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감상한 후, 실기 워크샵을 통해 함께 미술작품을 창작한다. 4~14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해 선정된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동일한 워크샵이 각 학기마다 반복된다.

‘가족영상’은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포함한 고전적 단편 영화를 미술관의 갤러리에서 소개하고 토론을 유도하며, 연계적 활동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MoMA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아트 사파리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출판된 교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카소, 헨리루소와 같은 화가 작품에 나오는 사자와 원숭이, 염소, 개 등의 여러 생물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토의하고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아트 사파리에서는 예술 작품에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게 꾸며져 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내고, 세계 다른 어린이들의 글과 작품을 볼 수 있다.¹³⁾

학교 프로그램은 시각적 사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사와 미술관 교육담당자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긴밀한 상호협조인데, 미술관은 교사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교사들에게 슬라이드나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대여하고, 교육과정을 자세히 알려준다. ‘시각적 사고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신중하게 준비된 질문을 통하여 대화를 이끌어가고, 학생들이 작품을 읽어나감으로써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계,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⁴⁾

1988년부터 기초연구가 시작된 시각적 사고 교육과정(Visual Thinking Curriculum, VTC)은 학생들이 미술과 상호작용 함으로서 발달이 촉진된다는 생각을 바

13) 뉴욕현대미술관 : <http://www.moma.org/education/family.html>, 2006. 11. 20.

14) 뉴욕현대미술관 : <http://www.moam.org/educaton/students.html>, 2006. 11. 20.

탕으로 하며, 특정 미술작품에 대해 비평적인 사고와 반응을 자극하여 일정한 답과 고정된 해석을 넘어선 의미의 다양성과 탐구를 강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시각적 사고 교육과정의 목적은 미술 감상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의 발달과 체험에 기초하며, 학생들은 미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것에 의해 관찰력을 확장한다. 시각적 사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감상한 미술을 분석하기 위해 함께 전략을 개발하고, 해석 능력과 상상적 반영 능력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시키도록 촉진한다. 학생들에게 이 과정이 그들 삶의 다른 측면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교사들은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도록 촉진된다.¹⁵⁾

그 외에 어린이들이 미술 감상을 위한 가이드로 선, 색, 면에 대한 내용과 이야기, 사람과 지역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는 책을 발간한다. 그리고 상설 프로그램 외에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존듀이(John Dewey)¹⁶⁾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미술관 교육가 Victor D'Amico는 <현대 미술관의 아동축제(Children's Carnival of Modern Ar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린이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의 창의적인 능력을 높이고 과거나 현재의 미술에 대한 안목을 높였다. 그 외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작 활동이나 미술관 관람을 위한 감상지의 개발 등 미술관에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2)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 Cleveland)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라

15) 이윤선,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61~62

16)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사상가인 존듀이는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철학의 대표자이자,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사회·경제·문화 등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만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 철학이 유행했는데, 듀이는 실용주의가 갖는 과학적 합리성에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의 도구주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이런 실용주의나 도구주의는 미국인의 생활철학과 개척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는 취지아래 1916년에 설립되었으며 박물관의 공공을 위한 이 사명은 교육과 공공프로그램 담당 부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3만점 이상의 미술작품 소장품은 고대 이집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00년간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명작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중에게 최상의 미적, 지적, 전문적 기준에 일치하는 미술품을 통해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수집, 연구, 교육, 지역사회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주로 미술관 소장품과 특별전시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상과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미술관 미술수업, 가족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어린이 Web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된다.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미술수업은 클리블랜드 미술관 개관 때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학습했던 것과 관련된 개인 미술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토론을 위한 갤러리 방문에 의해 미술관의 소장품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다. 작품제작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에 의해 다양한 시각을 탐색한다. 수업은 1년에 3학기 나뉘어, 취학 전 어린이부터 고등학생에게까지 제공된다. 봄, 가을학기는 8주간, 여름학기는 5주간 주1회 또는 2회로 진행되며 연령집단에 따라 반편성이 이루어진다.¹⁷⁾

가족 프로그램인 ‘가족표현’ 워크숍은 매일 셋째 주 일요일에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전시물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탐색한 후, 관련 주제를 다루는 실기수업을 통해 미술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셀프가이드 ‘함께 관람하기 : 어린이를 위한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개’는 미술관 경험에 어린이를 참여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¹⁸⁾

학교 학기 중 화-금요일까지 제공되는 학교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다. ‘학교 안내관람’은 미술관 소장품과 학교교실 학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주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 단체를 위한 실기수업과 갤러리 관람’은 15-30명의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

17) 클리블랜드미술관 : <http://www.clevelandart.org/educef/returns/html>, 2006. 11. 20.

18) 클리블랜드미술관 : <http://www.clevelandart.org/educef/returns/html>, 2006. 11. 20.

된다. 약 20-30분 동안 미술과 실기수업을 연결할 수 있는 소장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기 수업이 진행된다.¹⁹⁾

어린이 Web 프로젝트(Kids' Project)는 '매두사 가면 만들기', '스테인드글라스 창 만들기', '대리석 무늬 만들기(마블링)' 등으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실기 제작과정을 보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²⁰⁾

(3)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뜰리에

(L'Atelier des enfants du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1977년 개관한 퐁피두센터는 현대 미술관, 산업 디자인 센터, 영상 전시 공간, 음향·음악연구소, 공공 정보도서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개발·창조하고, 대중에게 소개·교육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퐁피두센터에서는 문화 교류촉진을 위한 대중교육을 가장 근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교육적인 활기 구축과 생산이라는 두 차원에서 방법론과 자재를 개발하고 있다.²¹⁾

퐁피두센터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아뜰리에', '전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작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용 도록을 연령에 맞게 개발하여 준비하고, 눈높이에 맞는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아뜰리에 전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갤러리에서 아이들이 마티스, 피카소 등의 작품을 보고 아뜰리에 공간 속에서 새로운 놀이 규범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하게 한다. 퐁피두센터는 모던아트를 유럽에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미술에 대한 영역을 좁게 회화와 조각영역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영역 속에 20세기 창조물들을 덧붙여 사진, 영화, 새로운 대중매체, 건축, 디자인도 그림과 조각 영역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새로운 그림의 세계를 엿 볼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아뜰리에에는 미술과 환경,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음악 등의 영역에서 새

19) 클리블랜드미술관 : <http://www.clevelandart.org/educatn/tours.html>, 2006. 11. 20.

20) 클리블랜드미술관 : http://www.clevelandart.org/educatn/L2_1.html, 2006. 11. 20.

21) 김은희,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4.

롭게 계획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통해 현대문화의 모든 형태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교육시키도록 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아뜰리에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적 접근으로 교육공간과 외부에서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미술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예술적인 깨달음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배우게 하고, 놀이를 통해 발견하고, 미술작품이나 작가들과의 접촉은 물론 실험과 발명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워크샵, 성인 재교육, 문화 보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어린이 아뜰리에 교육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영역적 접근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둘째, 유동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탐구영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개성을 키우도록 한다. 셋째, 미술입문의 출발점을 감각을 일깨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을 깨달으며, 감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발하여 표현하게 하는 다중 감각적 교육을 지향한다.

넷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등을 통해 미술작품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게 한다. 어린이 아뜰리에의 교육은 오늘날 작가들이 탐구와 창조를 근간으로 부단히 성장하는 교육적 활동이다.²²⁾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안내자를 통한 관람이 있다. 주 전시회가 있는 동안 걸려 있었던 작품 앞에서 생생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관람할 때 어린이들이 어떤 짜여진 것이 없이 색상과 물체, 대기와 땅, 빛과 어둠 등과 같은 주요 요소들의 감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술가들에 의해 창조된 모든 작품, 스케치 등 모든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짜여있다.

두 번째로 건축물 관람(architectural tours)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는 시선을 보다 섬세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파리에서의 세느강

22) 가엘 베르나르, 안소연 역,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뜰리에:어린이가 현대미술을 만드는 곳』, 『현대미술관연구집』 제6집, 국립현대미술관, 1995, pp.59~62.

과 강 주변을 둘러싼 도시 풍경과 건축적인 내용을 관찰한다. 단순한 건축의 외향뿐만 아닌 건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미적 가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그 건축이 가진 모든 것을 관람하고 배우도록 한다.

세 번째,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수요 아침의 워크샵으로 시각미술, 댄스, 음악 등 세 분야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창조적 워크샵으로 6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현대미술의 표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 초청 활동, 미술 갤러리, 현대미술관, 산업디자인센터 소장품을 통한 활동이 연간 제공된다. 어린이 아뜰리에에는 미술, 무용,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창조적 워크샵에서 ‘예술가의 선택’ 시리즈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술 분야는 근·현대 미술체험 워크샵으로, ‘놀이로 본 미술책자’ 시리즈에서 20세기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조적 워크샵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어린이에게 시각예술을 소개하기 위한 교수 도구로써 이해되는 이동전시는 공공 도서관, 병원, 지역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문화 센터를 위해서 계획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 교육활동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 ‘놀이로 본 미술’의 책 시리즈²³⁾는 어린이들에게 풍피두센터 내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부터 20세기 미술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발견하도록 이끄는 셸프가이드이다. 약 30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영어와 일어판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단체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미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어린 관람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미술가와와의 만남, 풍피두센터의 현대미술관 산업 디자인 센터의 시각재료에 기초해 현대미술가의 접근을 소개하는 ‘학교 교실활동’이 있다. ‘초대 미술 프로그램’은 소장품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만들어 학교나 문화기관에 단기간 동안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미술작품과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²⁴⁾

문화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국가에

23) 풍피두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로서 각 주제별로 구분되어져 있다.

24) 가엘 베르나르, 안소연 역, 앞의 책, pp.63~70.

서 많은 지원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학생들의 감각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3) 국내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1)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2005년 10월 28일, 광복 직후 국립박물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여섯 차례의 이전 끝에 용산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긴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다양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인 주중학급단체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 주중 방과후 프로그램, 체험교실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가족 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홍보팀의 가족프로그램과 소외계층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외계층프로그램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어린이박물관”을 선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가슴으로 느끼는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써 전시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이론학습과 체험, 감상수업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목적으로 약 340평(1,123㎡)규모로 건립되었다. 3~4학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과거로의 여행을 주제로 하여 집, 농사짓기, 음악, 전쟁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눈 전시 체험 이외에도 창의적 사고의 발판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워크시트(worksheet)를

제작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주중학급단체 프로그램, 주말 가족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주중 방과후 프로그램, 체험교실로 구분되어 있다.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²⁵⁾

구분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주중학급단체 프로그램, 학기중·방학 프로그램	족장회의	청동기인과 신라인의 만남을 소재로 금관, 목걸이를 만든 다음 역할 놀이를 통해 장신구의 상징성과 상호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	삼국시대 오케스트라	삼국시대 악기를 만들어보고, 향가(서동요)를 배워보는 프로그램
	우리는 고고학자 가족	발굴부터 그릇 복원까지의 과정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주중 방과후 프로그램	선사무늬 모빌만들기	암각화 및 기타 유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늬를 이용하여 모빌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선사시대 농사짓기	절구에 볍씨 째어보기, 그릇 만들어 짬은 쌀 저장하기
	박물관 이야기 교실	신화, 전설, 신화 등 전래동화를 재밌게 들려주는 이야기교실
체험교실	도전! 체험하기	체험교실에서 상설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키트박스를 이용한 체험학습(악기체험, 활비비와 발화구, 베틀체험, 김홍도 퍼즐북)

어린이박물관의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과 교육 분야(교육학, 미술교육학, 박물관 교육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교육된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 진행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 전체론적인 접근과 통합분야 학습의 가능성 제시, 소그룹·팀별 학습용이,

25)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child/edu>, 2006. 11. 20.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실현이 가능한 고고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10월 28일 개관 후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족장회의를 비롯한 총 6개의 교육프로그램은 총 7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3,032명(어린이박물관 총 관람객 수 57,479명)이 참가하였다. 실제 교육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살펴본 교육 참가자 및 교사,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족장회의>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중이 높고 흥미유발의 소재들을 통해 수업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고, 수업 자체가 구체적인 동기를 유발하며, 어린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전체적인 교육 시간 안배, 강사의 역량, 전체 완성도도 대체적으로 원만하였다. <선사무늬 모빌 만들기>는 어린이박물관에 언급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직접 강의와 연계시킨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모빌 만들기라는 단순한 소재를 주제가 있는 체험 학습으로 연결시킨 점을 높이 샀다. <선사시대 농사짓기>는 파워포인트를 통한 기초강의와 이어지는 전시실 현장 설명과 옛 토기를 재현하고 저장용기로서의 기능을 배워볼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의 연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박물관 이야기교실>은 신화, 전설, 설화 등 전래동화 외에도 창작동화, 예절 교육 관련 이야기도 다뤘으면 하는 바램과 참가대상을 유아, 초등학생 1~2학년 외에도 연령대별로 나누어 운영 횟수를 늘리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닌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삼국시대 오케스트라>는 흙 피리와 요고 외에 가야금, 대금 등을 강의 주제로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통장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 흙 피리 연주 및 기타 전통악기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음악수업과는 차별화되었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우리는 고고학자 가족>은 어린이박물관의 주요 테마인 고고학 박물관에 가장 접근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생소하게 여겨졌던 실제 발굴 작업을 경험하고 직접 발굴한 토기의 원형을 맞춰보는 체험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고고학의 중심 분야인 발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의

견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참가 가족에 비해 교육공간이 협소하고, 발굴 체험에 필요한 흙이 공기 중에 날려 체험에 방해 요인이 되는 등 공간을 재정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②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교육홍보팀을 중심으로 별도의 가족·어린이, 학교연계, 소외계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가족·어린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립중앙박물관 가족·어린이프로그램 현황²⁶⁾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엄마, 아빠! 그림속에는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재료학습을 통한 한국의 전통회화 기법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전시실 학습을 통해 유물을 이해함
도자기에 담긴 조상의 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전통도자기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통 도자기 실습, 활동지를 이용하여 전시실에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유물 감상
삼국의 찬란한 금속 장신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의 대표적 유물에 대한 이해, 시대별 공예기법을 중심으로 생활에 적극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금속 장신구 만들기 체험활동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학프로그램으로 암각화를 통한 선사인들의 생활상 이해할 수 있음

가족·어린이교육프로그램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방학 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있다. 특히 중앙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했으나 새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26)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kor/edu>, 2006. 11. 20.

③ 학교연계프로그램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순서를 보면, 첫째, 홈페이지에 주제별 프로그램 매뉴얼(지도교사용, 학생용)을 등록하여 각 학급별 다운로드 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학급별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의 사전준비(교실 내 심화학습)과정으로 진행된다. 둘째, 그 후 박물관에서 워크시트를 제공하여 상설 전시를 주제별 관람하게 하고 관람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다시 학교는 체험활동을 통한 사후학습(피드백 프로그램)과 관람시 작성한 워크시트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마련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박물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 2, 3층으로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장을 테마로 선택하여 모둠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총 12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의·식·주)와 문화의 범주로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가장 잘 규명해 주는 주제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의도하고 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유물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제별 관람을 통해 역사의 유기성을 제시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학습 장소로서의 박물관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습지 이용 및 지도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모둠별 관람 및 학습지 풀이, 사후학습(감상), 설문조사의 단계로 진행되며, 단체관람은 교사들의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교사의 사전지도지침과 교육으로 학생들의 관람에 도움이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료와 후속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관람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스스로 관람한 내용과 학교로 돌아가서의 학습을 공유하는 다양한 교육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전시실을 찾아가도록 하여 스스로 학습의 흥미를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 학습의 과정보다는 지나치게 문제해결에만 흥미를 갖는 느낌이 다분했고, 어린이들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는 교보재도 지나치게 많은 설명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좀더 간결한 문장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사전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교실로 돌아가 사후학습을 통해 내용을 다시 재확인시켜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④ 소외계층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의 추진배경은 문화예술 교육 체험기회가 적고 장애로 인해 위축감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이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근감을 도모하며, 이를 역사와 문화의 산실인 박물관이 매개가 되어 진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소외계층프로그램은 <출발! 우리 보물 손 끝 탐사대>, <병풍 속 동화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국립중앙박물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현황²⁷⁾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출발 우리 보물 손 끝 탐사대	시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전시실 학습, 직접 만져보는 국보급 유물 체험, 찰흙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병풍 속 동화세상	청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전시실 학습, 왕과 국가실 일월오악병 감상, 병풍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각장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터치뮤지엄(Touch Museum) 형식으로 진행되는 <출발! 우리 보물 손 끝 탐사대> 프로그램은 언어로만 이해하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입체적 체험전시 형태를 띄고 있다. 유물 모형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있는 전시장 관람, 교과과정에 나오는 총 6점의 국보급 입체 유물(청자투각칠보향로, 백제금동대향로, 기마인물형토기, 참외모양병, 금관대)과 2점의 형압인쇄 형식의 회화(김홍도의 서당,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를 선정하여 모형물로 제작하고 모듈별로 촉각을 통해 감상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국

27)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kor/edu>, 2006. 11. 20.

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된 모형 체험으로 우리 유물의 조형미를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듈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각 모듈별 강사들이 어린이들과 대화형식으로 유물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촉각으로 감상한 유물모형의 일부를 점자책의 느낌처럼 아연판에 헤라를 이용하여 유물을 형상화해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찰흙을 이용하여 기와를 제작함으로써 토기의 질감을 만져보며 전통문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점자책을 발간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청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병풍 속 동화세상>은 시각적 화려함을 선호하는 청각장애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시실 역사관 “왕과 국가실”의 일월오악병을 감상하고 조선시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병풍 종류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화려한 병풍을 모듈별, 개인별로 만들어보는 체험시간을 갖고 작품발표 및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한국회화를 퍼즐로 맞춰보는 주사위 게임을 진행하고 어린이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증식 사진을 찍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특수학교가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원거리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점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장애학교의 관계자들이 장애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장애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아웃리치(outreach)²⁸⁾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전국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에 제시된 프로그램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삼성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삼성어린이박물관은 전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아

28) 아웃리치(Outreach)는 원래 팔이나 손을 뻗는다는 의미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뜻한다.

동학,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어린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은 삼성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체험식 박물관으로 1995년에 개관하였다. 체험식 전시물을 통한 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은 전체 면적 1200평, 전시면적 700평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의 탐구와 표현능력의 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11개의 전시영역에서 총 100여개의 전시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조작해 보면서 어린이들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100여개의 체험 전시물 중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추천 전시물을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학부모용 활동지로 구분 제작하여 체험하는 어린이들만이 아닌 학부모들이 내용을 인지하여 자녀들과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전시와 관련된 사전 예약제 형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단체관람이 아닌 개인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특별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장에서는 이를 상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과 특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① 상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상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된 단체에 한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개인별 관람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체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체 관람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이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단체 인솔교사에게는 사전답사의 기회가 제공된다. 박물관 교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 전시 내용을 이해하여 견학에 앞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문 하루 전날에는 확인 전화를 통해 관람에 대한 최종 확인과 안내를 하며, 방문 당일에는 단체별로 시간에 따른 동선을 정한 일정표를 제공하여 타 단체와 겹치지 않으면서 영역별로 자유선택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2시간으로 정해진 단체의 전시장 관람 중에는 영역별 박물관 교사 및 보조교사,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며, 또한 어린이방송국에서는 첨단 방송장비를 활용한 수업, 아트워크숍에서는 미술 수업도 진행된다.

개인별 관람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적정 인원만을 입장시켜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관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전시물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활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전시물에는 설명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벽면에 활동지를 비치하여 전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간단한 탐구활동을 소개하여 가정으로까지 박물관 학습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 심화된 내용의 가이드북을 출판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심화학습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멀티미디어 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스티커 붙이기, 색칠 표현 중심의 놀이 활동책인 액티비티북을 출판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연장학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 아트워크숍과 어린이방송국에서는 담당교사들에 의해 수업형식의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전시장에서도 오픈된 공간에 별도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시간동안에 원하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체험학습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표 5> 삼성어린이박물관 상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아트 워크숍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이색적인 미술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사진으로 꾸민 악기, 멜로디 상자 만들기 등
어린이 방송국	분장놀이, 손 인형극, 악기연주, 신체표현을 하면서 TV속 주인공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② 특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의 연령별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동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시영역별 주제와 관련되거나 전시영역을 보완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더욱 심화되고 특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표 6> 삼성어린이박물관 특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²⁹⁾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영유아놀이스쿨	2~4세 영유아들이 엄마와 함께하는 신체, 미술, 언어, 인지, 요리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전 인지적인 발달을 꾀하는 프로그램
금요아트스쿨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토론을 통해 시·지각능력을 기르고 관련 주제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해봄으로써 미적 감성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유아아트스쿨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가의 작품을 감상한 후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미술작품을 표현해 봄으로써 미적감성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키즈놀이스쿨	전래동화 등의 그림책을 통하여 언어의 총체적인 접근, 문학적 감상, 창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자아개념, 정서, 사회성을 지향하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사이언스 스쿨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건과 사물을 다루는 실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29) 삼성어린이박물관 : <http://www.samsungkids.org/program/school>, 2006. 11. 20.

③ 찾아가는 박물관(out-reach) 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³⁰⁾은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입체적인 교육 자료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한 학급 이상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특별전시 기획시 축적된 자료와 지식을 슬라이드, 청각자료, 학습 패널, 활동지, 실물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삼성어린이박물관은 홈페이지(www.samsungkids.org)를 통하여 박물관의 각종자료를 정보화하여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관람 전 사전 학습을 하여 전시물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람 후의 사후 학습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하도록 잘 고안되어진 전시물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담당자들의 역할이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담당자들이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었고, 교육담당자들은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실제 진행에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기획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진행후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추후 프로그램의 진행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또한 장점이다.

(3)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과 국제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우수작품들을 소장·전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술문화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건립되었다. 현재 전문인, 일반인,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관 교육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린이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미술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미술관 소장품 감상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계시킴으로써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평, 표현능력을 균형 있게 길러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다. 또한 감상과 표현활동의 통합에

30) 찾아가는 박물관은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의 하나로 아웃리치(out-reach)는 사전적인 의미로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손을 내미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포함된다.

의해 작품이 지닌 역사와 사회적 문화배경을 이해시켜 어린이들이 미술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별 어린이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³¹⁾

교육프로그램명	내 용
미술관은 내 친구	미술관 섹션별 선정한 주제작품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비평 활동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나 교사들이 서로간의 토론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미술문화와 친화력을 형성하는 기회제공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기획전과 연계한 어린이 미술비평 활동, 판화라는 장르를 통해 작가는 시대상을 어떻게 반추하며 인간군상을 그려내고 있는지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판화로 찍어보는 체험활동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장애아들의 정서에 안정을 주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감상과 실기수업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미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어린이 미술관 탐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하여 쉽게 미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우리가족 미술여행	겨울방학 기간 중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과 직접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어린이와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술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교육활동
함께하는 미술관소풍	초등학생인 장애아와 가족이 미술교육에 참여하여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미술관 소장품 감상과 실기 창작 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친근감을 다지면서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31) 국립현대미술관 : <http://www.moca.go.kr/lecture.jsp>, 2006. 11. 20.

(4)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민족의 전통생활을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터전으로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은 6~7세 어린이부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1개 학급이 그룹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체별로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민속박물관에서 제작한 관람 예절에 관한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인 “멋진 관람 우리들의 약속”과 민속박물관의 소개 영상 교육 자료인 “동이와 장이의 박물관 여행기”를 참가단체에 발송하여 방문 전 박물관의 역할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프로그램에는 “선생님을 위한 길잡이”, “학생활동지”들이 제공되어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매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학습, 전통 민속 문화 체험교육, 현장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립모형과 영상자료 등의 전시매체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민속 내용을 어린이들이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험위주의 박물관인 어린이민속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주제는 크게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민속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³²⁾

3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보』 제13호, 2005, pp.122~139.

<표 8>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³³⁾

구분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병아리 민속교실	어린이에게 전시 관람과 연계하여 민속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우리문화 한아름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및 '체험학습의 날'과 연계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초등학교 사회교과 내용 중 의생활 부분에 대한 이론·시청각·전시실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전시물에 대한 이해 및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박물관나들이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초등학교 어린이의 가족이 함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5)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2002년 5월에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린이·청소년·성인·가족·외국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전시와 관련된 강좌나 교양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박물관이나 유물대여를 통해 시민에게 나아가며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체험방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들어 “로마전-로마 제국의 인간과 신(‘04.6.29~9.12)”의 경우, 특별전을 통해 로마전 관련 구연동화, 온라인, 오프라인 퀴즈게임, 액터(Actor)를 이용한 포토존 운영 등 교육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였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어린이·가족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33) 국립민속박물관 : http://www.nfm.go.kr/join/j2_1kids, 2006. 11. 20.

<표 9>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³⁴⁾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어린이 역사 탐험교실	낮선 옛 생활 유물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시실의 유물 관람을 통해 전통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학 프로그램
전통 문화 체험교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조선시대 서울을 재현하고, 생활 유물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서울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기중 프로그램
오늘은 엄마·아빠와 함께 박물관에서	특별전 개최기간동안 전시내용을 주제로 전시관람 및 실기수업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가족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동반한 가족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가 전시설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그룹과 자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전시설명을 들은 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재설명하는 체험을 통하여 유물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임

4) 전문 연구소를 통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박물관·미술관은 대중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여러 박물관이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고 대중들을 문화의 전당인 박물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다. 최근 들어서는 박물관·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체들이 등장해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박물관에서만 기획되고 연구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미술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34) 서울역사박물관 : <http://www.museum.seoul.kr/어린이프로그램>, 2006. 11. 20.

자 한다. 연구의 대상인 두 연구소는 박물관·미술관학, 역사교육 등을 전공한 전공자들로 박물관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 및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연구소 담당자와의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 뮤지엄교육연구소

뮤지엄교육연구소³⁵⁾는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격과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뮤지엄교육연구소는 국외의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처음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연구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은 감상교육과 간단한 미술활동의 실기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대학교의 박물관 교육이 외부의 박물관·미술관에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지금 뮤지엄교육연구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서울 올림픽미술관·성곡미술관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술가적 소양과 감상가적 소양을 동시에 기르는데 있으며,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의 배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미술교육은 박물관·미술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두고 시작하게 되었다. 뮤지엄교육연구소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큰 틀로 시청각 교육, 전시감상교육, 표현활동, 비평토론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구성방식을 지닌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다른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진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슬라이드와 비디오, 교재 등의 시청각 교육을 통한 전체적인 설명과 주제에 따른 동기유발을 유도하는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시와 나’, ‘작품과 나’의

35) 뮤지엄교육연구소 : http://www.meme21.com/introduce/intro_01.htm, 2006. 11. 1.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위해 워크샵을 활용하여 전시물에 대한 질문과 답하기, 스케치 해보기, 스티커 붙이기 등의 전시감상교육을 진행하고, 표현활동을 통한 유물 및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자신의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비교, 토의해 봄으로써 비평능력의 향상 및 심화학습을 추구하도록 기획하였다.

박물관·미술관과 연계하여 각 기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소 팀원이 함께 의논하여 대략 3가지 정도의 교육프로그램 기본 기획안을 제출하여 박물관·미술관과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주제 선정방식은 3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하면, 여러 기관들에서 그 공모에 참여하여 선택되는 경우로 주제가 선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뮤지엄교육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시행하면 박물관·미술관에서 선택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세 번째로는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하여 서로 합의 토론하는 식으로 기획된다. 이러한 교육주제는 전시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보다는 연구소 팀원이 의논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³⁶⁾

이와 같이 뮤지엄교육연구소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전시를 이용자가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박물관·미술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⁷⁾

(2) 인투뮤지엄(in2museum)

아트선재센터의 교육팀이 분리·독립하여 설립한 단체인 인투뮤지엄(in2museum)이 있다. 처음 아트선재센터 교육팀에서 약 5년 동안 다양한 내용과 대상의

36)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기획안은 각 연계한 박물관·미술관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위의 방법과 같이 실행된다.

37) 이정란,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교육시스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33~35.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⁸⁾ 아트선재센터에서는 강좌와 어린이교육을 시작으로 현재는 어린이, 학교연계, 도슨트(docent),³⁹⁾ 강좌, 인턴쉽⁴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각 대상의 성격에 맞게 특성화·전문화하여 운영해왔다.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 노력을 보이는 사립미술관이었던 아트선재센터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미술관 내부의 문제로 인해, 미술관 안에서 교육팀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어서 아트선재센터 교육팀에서 나와 2004년에 인투뮤지엄(in2museum)이라는 미술관 교육전문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어린이 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좀더 편하고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독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체험과 문화예술에 관해 흥미를 갖도록 하는 미술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 하는 미술관은 놀이터’로 동시대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나 작가의 감수성을 전달하고, 다양한 사고와 매체를 통한 새로운 체험의 시간과 전문 에듀케이터의 가이드로 전시가 열리는 것을 관람하면서 간단한 미술활동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가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 함께 미술을 하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매회 초청된 작가는 바뀌면서 아이들의 수업 또한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도 젊은 작가들의 감각적인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미술관(Traveling&Visit)>, <단

38) 인투뮤지엄 : www.in2museum.com/index_edu.htm, 2006. 11. 1.

39) 박물관 도슨트(docent)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도세레(dosere)’에서 유래하였으며, 학술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academic lecture)을 의미한다. 랜덤하우스 사전에 의하면, 도슨트는 ‘박물관의 전시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40) 박물관·미술관 관련학과인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전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학 전공 등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인턴실습을 학점으로 인정, 교류하는 시스템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체전시 관람(In&Out) >, <비전과 꿈(Vision&Inspiration)> 등이 있다.

인투뮤지엄에서는 먼저 미술관이나 기업에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의뢰가 들어오면 각 박물관·미술관이나 기업의 설립 취지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자문, 운영함으로써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미술관을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기관내의 모든 팀원이 함께 의논을 하여, 의뢰가 들어온 박물관·미술관이나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곳에 맞는 큰 주제나 교육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인투뮤지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술관이나 기업에 제안하는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이나 기업에서 그 곳의 전시 혹은 기업의 특성 등 방향 제시와 장소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인투뮤지엄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 그래서 주제는 박물관·미술관, 기업별로 프로그램 주제마다 매번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⁴¹⁾

2.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 현황과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 어린이 박물관 교육의 프로그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박물관 교육은 전시품, 즉 인간 경험을 문화적 맥락과 시간과 공간상의 위치에서 모색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을 종합하고 의견을 형성하며, 미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은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습자를 자극한다. 이러한 차이는 상상력, 관찰력, 사고력 등을 자극하며 다른 문화, 시대, 세계의 관점 등에 대한 감상을 촉진한다.

41) 이정관, 앞의 논문, pp.41~54.

현대 박물관의 교육 기능은 전시품을 활용한 참여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장 내에서 관람자를 중심으로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설명 방법은 관람자에게 수동적인 사고를 유도하게 됨으로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전시품에 좀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중심으로 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흥미와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박물관에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앞서 살펴본 국내·외 대부분의 박물관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의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대상별 프로그램의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시물과 연계된 것만이 아닌 학교교육, 가족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웹 프로그램, 다문화적인 체험과 교육, 장애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가족이 함께 하는 열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교교육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박물관·미술관을 한층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념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박물관·미술관이 어린이·가족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교사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박물관은 박물관 교육의 영역이 넓고 교육 전문 인력이 갖춰진 곳으로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과는 달리 독자성이 강하며,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이 반영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수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은 잠재적인 관람객이나 다름없는 만큼 어릴 때부터 박물관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박물관과 친숙해 질

필요가 있다. 특히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와 달리 현장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들어서 여러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교육프로그램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는 면에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나 교육목적 및 기대효과 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박물관에서의 교육기능 확대에 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내 여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2006년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박물관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여러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실 연계 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방학프로그램 등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시별 다채로운 어린이 문화행사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도 흥미로운 교육적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각 박물관별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서울,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립지방박물관을 비롯한 공·사립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재와 박물관 교육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위에 언급된 주요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전문 공간 마련을 위해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경주박물관, 전주박물관, 청주박물관, 광주박물관, 대구박물관, 김해박물관이 사회교육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 공간 및 체험공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부여박물관이 사회교육관 건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립박물관의 경우 사회교육 인력이 중앙과 전주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은 학예직 혹은 일반 사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요구되어지는 전문성은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 국립박물관의 이원화된 조직체계, 즉 관리과와 학예연구실로 구분되는 체계 중에서도 일부 박물관은 관리과에서 또 일부 박물관은 학예연구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일원화된 창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각 지방 국립박물관의 이원화된 조직체계인 관리과, 학예연구실 외에 교육전문팀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교육전문부서에는 역사적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과 교육전문가를 필히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일회성 행사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박물관의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Ⅲ.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주박물관의 효율적인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가장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국립제주박물관과 관련된 문헌조사, 인터넷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함께 다룬 것임을 밝혀둔다.

1.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현황

2001년 6월 15일에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 전시, 보존, 연구하는 고고·역사박물관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의 11개 지방박물관 가운데 10번째로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은 개방적인 해양문화와 제주문화의 형성 과정을 주제별·내용별로 전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주도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비롯해 제주 민속자료, 제주읍성 모형, 탐라 옛 지도 등 제주 관련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1)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

국립제주박물관은 부지면적 16,813평, 연면적 2,870평으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강당, 주차장, 기타 사무실로 구분된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다시 상설전시실은 선사·고고실, 탐라Ⅰ실, 탐라Ⅱ실, 탐라Ⅲ실, 조선시대실, 기증유물실로 구분되고 그 밖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조형물과 민속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전시장과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 도입부인 중앙홀에는 제주읍성 디오라마와 탐라개국신화를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시되고 있으며, 선사·고고실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기원전후에 이르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선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탐라실은 기원전 후부터 고려시대까지 전개된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 탐라의 형성, 전개와 발전, 옛 지도 속 탐라의 모습을 주제로 3개실로 나뉘어져 있다. 조선시대실은 조선시대 제주도 통치 자료와 유배자료, 제주 사람들의 생활 자료, 표류와 표착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기증유물실은 2001년 6월 개관 이래 기증된 수천여점의 유물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교체 전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제주의 현무암으로 만든 조형물과 민속품을 만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불탑사(원당사지)5층석탑을 복제하여 전시하였고, 삼양동 유적의 고상가옥과 제주의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덕판배를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⁴²⁾

42) 국립제주박물관, 『개관5년사』, 2006, pp.15~17.

<표 1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 구성도

전시구성	전시내용
중앙홀	제주역사의 시작과 삼성신화(스테인드글라스), 제주읍성모형
선사·고고실	선사문화의 전개와 발전, 화산섬 제주, 인류의 등장, 마을의 탄생, 대외교류
탐라 I 실	탐라문화의 형성과 전개, 광지리식 토기문화, 삼국시대의 탐라
탐라 II 실	탐라중기 문화, 통일신라시대의 탐라, 고내리식 토기문화, 신창리 해저유적, 고려시대 탐라, 대몽항쟁, 불교문화
탐라 III 실	탐라의 옛 지도, 탐라순력도
조선시대실	제주목의 설치와 운영, 삼읍과 방어체제, 제주의 학문과 유배인, 생활문화, 섬의 예술, 표류와 표도, 서양과의 만남
기증유물실	김순이 선생 등 기증유물
기획전시실	특별기획전
야외전시장	석조물, 민속품

국립제주박물관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관장을 중심으로 한 1개과·1개실로 분리되며, 과·실별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국립제주박물관 조직구성⁴³⁾

부서명	분장업무
관장	박물관 업무 총괄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예산 및 회계, 인사, 서무 - 시설의 관리 및 방호, 시설의 대관 - 관람 안내, 박물관 홍보, 홈페이지 운영 - 상설체험코너, 상설체험학습장 운영 -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 박물관 나들이, 박물관 학교)
학예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 소장유물 관리,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 관리 - 박물관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 도서실 운영 - 문화유적 조사 및 학술조사연구

2006년 현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별 업무를 살펴보면, 관리과에서는 어린이 관련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예연구실에서는 박물관 강좌, 청소년 역사캠프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Educator)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지방박물관은 박물관별로 관리과와 학예연구실에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박물관의 경우는 현재 박물관 교육 전문 인력이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만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늘어가는 교육수요에 부응할만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 지방박물관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인력(Educator)을 갖추어 체계적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환경분석(SWOT)⁴⁴⁾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환경분석(SWOT)

내적강점(Strength)	내적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고교·역사박물관으로서 역사·향토 교육 중심 박물관 ○ 사라봉공원, 우당도서관, 체육센터, 교육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자원 인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 강당, 세미나실, 체험관 등 교육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 교육 담당 전문 인력의 부재 ○ 교육자료 미비 ○ 전문화된 교육시스템 미비
외적기회(Opportunity)	외적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제근무, 주5일제수업 등과 관련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여가시간 증가 ○ 박물관 교육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예산의 부족 ○ 도민의 높은 관심에 따른 양적, 질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

43) 국립제주박물관, 앞의 책, p.132.

44)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2)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6년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성인교육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상설체험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국립제주박물관 박물관 교육의 시초는 2001년 개관과 함께 도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성인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10월경이다. 2001년 “박물관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는 제주,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문화강좌”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 강좌별로 강의 내용을 엮어 만든 문화충서를 교육교재로 발간하고, 수강생들과 도내·외 유적답사, 박물관 전시 관람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강좌는 우수한 강사진과 질 높은 교육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개관 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을 위한 강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왔으나, 2006년 현재까지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어린이·가족프로그램>,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지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먼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시초였던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2004년 2월에 시작된 “박물관 일일체험”이 그것이다. “박물관 일일체험”은 저소득층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평소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박물관 관람 위주로만 편성되어 일회성 행사라는 느낌이 다분했던 이 프로그램은 현재 평소 어린이들이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시 관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되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박물관교실”은 2004년 10월 가파도 지역주민 및 가파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6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문화소외지역의 초·중학교를 찾아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제수업, 사회과 수업, 특별 활동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 제한된 교실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 바로 알기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적·향토적 특성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인 선사시대 토기 만들기, 동자석 만들기, 나만의 관화 만들기, 탁본·목판 인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초창기의 찾아가는 박물관교실은 단순히 박물관에서 학교로 찾아가 이루어지는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판단하는 일부 교사들의 무관심,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과정과의 연계가 쉽지 않아 토요일 오전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에게 풍족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2006년도에는 학교 측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와 박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기본 취지를 되살리고자 학교를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소정의 계획서를 함께 신청 접수 양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급적 소규모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신청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제한된 운영인력으로 여러 학교의 신청 의뢰에 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특히, 찾아가는 박물관교실은 제한된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박물관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또래친구 자원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 겨울방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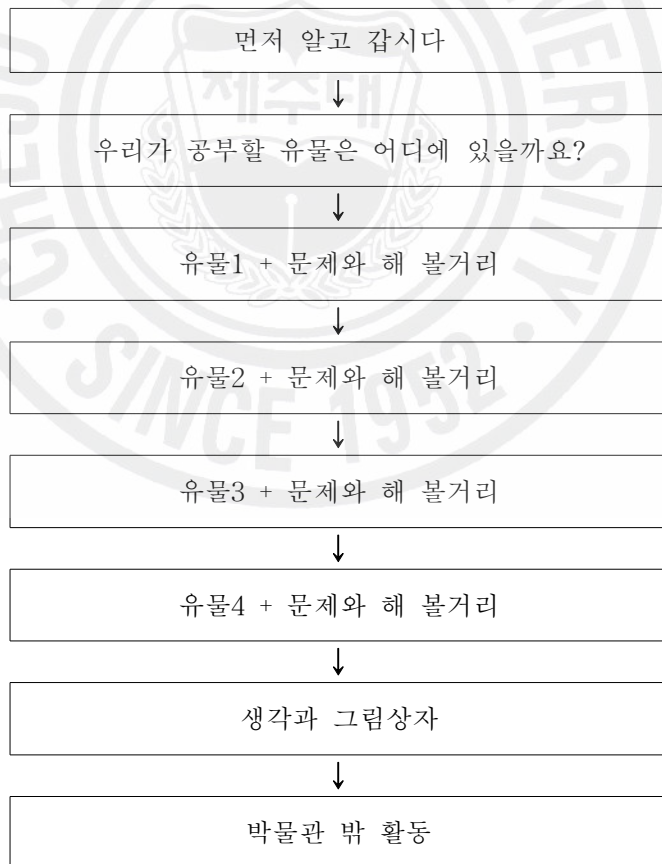
터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제도로 단순한 환경미화나 업무보조 등의 활동이 아닌 국립제주박물관 성인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전시실 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또래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도슨트(Docent)로 활동하게 된다. 2006년 겨울방학에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신나는 겨울박물관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 도슨트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정이 끝난 후 어린이들이 직접 전시실과 체험코너에서 또래친구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연결시켜 운영한 바 있다.

대규모의 단체관람이 이루어지는 박물관 현장학습에 참여 신청을 한 학급단위의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박물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박물관 관련 동영상인 <박물관에서 하는 일>, <국립제주박물관 소개 동영상>을 보고 별도로 제작된 워크시트인 “박물관 전시실 탐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실을 관람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물관 전시실 탐험”은 박물관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박물관 유물을 쉽고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제주박물관이 제작한 것으로 전시 유물 설명문이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박물관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발간하였다. 학습자료별 주제는 각 전시실별로 선사시대실<제주도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탐라1실<옛날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탐라2실<고려시대의 제주도 들여다보기>, 탐라3실<조선시대의 제주도 지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실(1)<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조선시대실(2)<조선시대의 제주도 들여다보기>로 구분된다. 자료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교사강좌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먼저,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의

박물관 관련 학습 단원을 조사하였고, 각 학습 단원과 관련된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유물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일람표에 의해 관련 유물 20점을 선정하고, 설명과 간단한 문제로 구성된 교재 1안을 제작하였다. 현직교사 및 교육전문가 등 자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시실별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풀이 방법이 도출되었다. 전시실별로 주제를 정하여 총 6종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시실별로 각 4개의 유물과 문제풀이를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 2안이 개발되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 디자인을 구상하고, 가제본된 학습 자료로 다시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언어 사용 및 기타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다. 전시실 탐험의 구성내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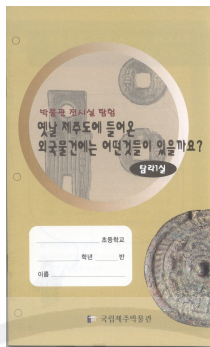
<표 13> 박물관 전시실 탐험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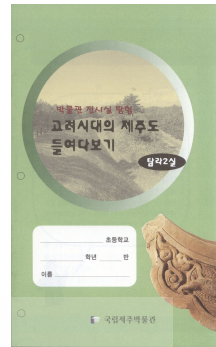
<그림 1. 박물관 전시실 탐험 활동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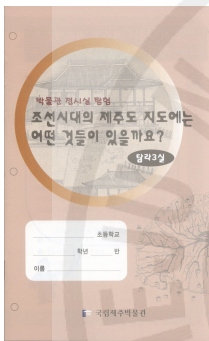
선사시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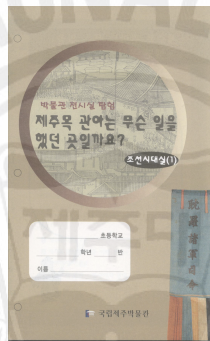
탐라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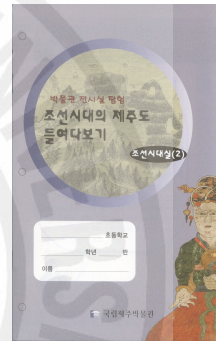
탐라2실



탐라3실



조선시대실(1)



조선시대실(2)

“박물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교육 활동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직접 살아있는 현장에서 학습하여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된 교육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들 수 있다.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의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부터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에서 관람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2005년 6월부터는 어린이·가족프로그램인 “엄마·아빠와 박물관나들이”를 개설하였다. 어린이·가족프로그램의 포커스는 단지 어린이들의 보호자로 프로그램 진

행에 보조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교육계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발맞춰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 박물관의 전시물 및 제주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먼저, 주제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거친다. 전시물과 관련된 체험인 경우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실로 이동하여 해당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감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참가자들이 함께 주제와 관련된 체험을 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2005년도에는 토기 만들기, 염색 체험, 신화이야기, 유물 문양 체험, 옛 지도, 핀홀카메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우리 그릇이야기, 우리 그림이야기, 우리 장신구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주제별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엄마·아빠와 박물관나들이”는 매회 접수기간마다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말 여가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학부모들은 단순히 어린이의 보호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읽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배경자료나 활동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고 교육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사후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박물관나들이는 여러 어린이에게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한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은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박물관나들이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심화과정으로 다시 편성하여 내용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점차 내고 있다. 박

물관나들이는 가족,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어린이들의 지적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력 있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강사 발굴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2004년도 제주도의 전통지역 문화 축제인 “탐라문화제”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 동안 박물관에서 시범운영 결과(참가자 4,440명)를 토대로 하여, 2005년 3월 15일부터 전시실 내 상설체험코너(8평)를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상설체험코너 프로그램은 탁본·목판인쇄, 불탑사5층석탑 만들기, 관덕정 만들기 등이었으며, 가족단위 관람객 및 보육시설, 초·중등학교 학급 단위 관람객들이 우리 문화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써 각광받았다. 상설체험코너 이용현황을 보면, 체험코너가 개설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17,011명,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22,896명이 체험코너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는 기존의 체험물을 보완하고 다양한 체험물을 확충하는 단계를 거쳐 탁본·목판인쇄 전용 체험코너인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으로 재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험코너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재료인 한지는 전시실내 뮤지엄 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상설체험	
매 일	“신비의 섬, 탐라” (탁본) 제주목관아 연꽃무늬 수막새, 수정사지 인왕상 (목판)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세한도
특별체험	
화요일 수요일	“늠름한 기상을 자랑하는 고구려” (탁본) 고구려 연꽃무늬 수막새, 태왕릉·천주총 출토 명문벽돌 (목판) 각저총 씨름도, 금동투조금구
목요일 금요일	“백제의 숨결” (탁본) 산수무늬벽돌, 봉황무늬벽돌, 연꽃도깨비무늬벽돌, 얼굴 무늬토기편
토요일 일요일	“신라 그 천년의 문화 속으로” (탁본) 보상당초무늬벽돌, 모란문벽돌,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목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다음으로 2006년 10월부터 운영되는 체험관 “어린이올레”가 있다. 이는 최근 보고 느끼고 만지는 체험 교육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제주박물관에서도 어린이들이 박물관 관람과 함께 조선시대 제주의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들에게 1700년대 제주의 자연, 역사, 풍습 등이 담긴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진상을 통한 제주의 특산품, 교래대렴 재현하기, 제주의 방어체계 알아보기, 정의고을 만들기 외에도 제주의 토기의 변천과정을 퍼즐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관 규모는 약 50평으로 총 체험시간은 1시간, 1회 최대 수용 인원은 20명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체험관 이용을 단순히 놀이하는 공간으로만 인식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1~3학년의 난이도에 맞춰 학습지를 제작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체험물별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진상품을 통해 제주의 특산물을 알

아보는 돌려보기 체험,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과 감귤봉진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들여다보기 체험,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제주의 방어체계 알아보기, 탐라순력도
 의 일부 장면 프로타주, 교래대립 재현하기, 레고형 정의고을 만들기, 제주도 출
 토 토기 퍼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5>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구분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겨울방학 프로그램	신나는 겨울박물관 학교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 전시실 학습, 전시실 학습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도슨트 및 체험코너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된 프로그램
주5일제 수업 연계 프로그램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박물관나들이	초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박물관 일일체험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및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박물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 지역의 초·중학교를 찾아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현장학습 프로그램	박물관 현장 학습 프로그램 (시범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참여 신청을 한 학급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련 동영상을 보고 별도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체험프로그램	상설체험코너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제주도·고구려·신라·백제 관련 문화재를 탁본·목관인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체험관 어린이올레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1702년 제주의 역사, 풍습, 자연 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인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의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3) 발전 가능성 연구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6월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역사는 짧지만,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전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통해 친근한 박물관으로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람객들이 쉽게 전시 유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물설명문을 보완하는 등 상설전시실 환경 개선의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휴식공간으로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립제주박물관의 2005년 만족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2005년 12월에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인지도, 문화행사 참여의향, 선호하는 문화행사와 관련된 관람객들의 결과를 2004년도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16>, <표 17>, <표 18>과 같다.⁴⁵⁾

<표 16>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인지도

조사년도	인 지 도	응답	잘안다	들은적있다	잘 모른다
2005년	제주도	29	20.7%	24.1%	55.2%
	제주도외	171	1.2%	3.5%	95.3%
2004년	제주도	69	10.1%	39.1%	50.7%
	제주도외	107	0.9%	15.0%	84.1%

45) <표 16>, <표 17>, <표 18>은 국립제주박물관이 관광객, 제주도민, 전시실 관람객을 대상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실시한 “인지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17> 문화행사 참여의향

조사년도	참여의향	응답	참 여	모르겠다	불 참
2005년	제주도	29	69.0%	24.1%	6.9%
	제주도외	171	48.0%	33.3%	18.7%
2004년	제주도	69	68.1%	15.9%	15.9%
	제주도외	107	23.4%	17.8%	58.9%

<표 18> 선호하는 문화행사

조사년도	불편한 점	응답	공연, 연주회	문학 행사	영화 상영	야외 음악회	일일 체험	기 타 (민속)
2005년도	제주도	29	13.8%	17.2%	27.6%	6.9%	34.5%	
	제주도외	171	21.1%	9.9%	13.5%	9.9%	32.7%	12.9%
2004년도	제주도	69	34.8%	4.3%	17.4%	10.1%	8.7%	24.5%
	제주도외	107	13.1%	7.5%	6.5%	4.7%	15.9%	52.3%

<표 16>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들의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인지도가 10.1%에서 20.7% 상승하였으며 ‘들은 적이 있다’는 의견은 39.1%에서 24.1%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7>의 문화행사 참여의향은 68.1%에서 69.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15.9%에서 6.9%로 감소하였으며, <표 18>의 제주도민들이 박물관에서 개최했다면 좋은 문화행사에 대해 ‘공연, 연주회’가 34.8%에서 13.8%로 감소하였으며 ‘좋은 영화상영’이 17.4%에서 27.6%로, ‘박물관 일일체험’이 8.7%에서 34.5%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광객들이 박물관에서 개최했다면 좋은 문화행사에 대해 ‘공연 및 연주회’가 13.1%에서 21.1%로 상승하였으며 ‘박물관 일일체험’도 15.9%에서 32.7%로 상승하여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박물관은 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 박물관 교육 등 관심사항이 폭 넓게 변화하고 있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유일무이한 고고·역사박물관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까지 제주의 총체적인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역사적 문물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문화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다. 이제 박물관은 일회성 관람만으로 끝나

는 공간이 아닌 관람객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박물관으로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립제주박물관 역시 그동안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졌던 지루하고 딱딱한 박물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급하여 폭넓은 문화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설전시물의 보완과 특색 있는 특별전의 개최, 수준 높은 순회 특별전 개최,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립제주박물관은 개관 이후 성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 2004년부터는 대상을 다양화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교육 전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대상별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루어진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비롯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언급되는 내용은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균형 있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종의 자극제가 되어 향후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교육 전문 시스템 구축

먼저 교육전문 인력에 관해 언급하면, 박물관 조직의 구성원은 크게 조직 내의

구성원과 조직 외의 구성원으로 나누어진다. 조직 내의 구성원은 관장과 전문적인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행정 인력, 자원봉사자(인턴 및 도슨트)로 구성된다. 흔히 학예사라고도 불리우는 큐레이터(Curator)⁴⁶⁾는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 있는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물관 소장품 및 대외 전시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⁴⁷⁾

다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교육담당자(Educator)이다. 박물관의 교육 인력은 에듀케이터(Educator)로 통칭할 수 있다. 박물관 에듀케이터는 박물관 전문직종(museum professions)의 하나로서⁴⁸⁾, 국제적으로 박물관 교육 전문 인력을 이르는 일반적인 직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것이며, 기관에 따라 에듀케이터(educator) 이외에도 curator of education, education officer 등 부여하는 직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편의상 에듀케이터(educator)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교육담당, 학예직 교육담당, 교육연구원, 에듀케이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⁴⁹⁾

박물관 교육 담당자는 일반 관람객들의 박물관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하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감독한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중매체와 첨단 기술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시, 셀프가이드(self-guide)에 대한 출판물 기획, 전시장 안내, 영화, 강연, 강의, 특별 이벤트, 실기 강좌,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박물관 학교, 박물관 외부의 활동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담당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실무에 관련된 책임도 져야 한다.⁵⁰⁾

46)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하면, 학예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47) 이보아, 앞의 책, pp.112~113.

48) 미국박물관협회(AAM)는 박물관의 전문직종군을 다음의 15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관장, 재무담당,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록담당자, 보존담당자, 전시디자이너, 홍보섭외담당자, 자금조달담당자, 사서, 미술관 회원제 담당자, 시설관리자, 소장품관리자, 편집자, 사진기사 등을 망라한다.

49) 문화관광부,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연구』, 2006, p.61.

50) 이보아, 앞의 책, pp.113~114.

기존 박물관 교육의 기능 영역은 기껏해야 박물관 종사자들간에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여 박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굴·보존·연구·전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국립박물관에서 행해지던 박물관 대학, 박물관 강좌, 그리고 문화유적지 답사 등 일반인 상대의 사회교육적인 기능에서 박물관 종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학교 교육연계 프로그램 등 그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에듀케이터를 갖춘 일부 박물관에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큐레이터는 전시에는 전문가지만,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문이 교육적인 언어로 서술되었는가에 대한 에듀케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훌륭한 박물관 시설, 질 높은 박물관 자료와 전시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 박물관의 교육담당자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박물관 교육이 발달한 나라를 보면 박물관 교육담당자가 박물관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전문적인 전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것으로 시작된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역할은 이제는 설명문을 쉽게 서술하는 것은 물론, 전시 개발에 참여하고 관람객 조사를 수행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의 그 중심이 유물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물관에서 개인의 교육적 체험이 강조될수록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박물관 교육전문가는 박물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이며, 최근에 사회교육관을 건립한 광주·대구·청주·김해에서 2006년 11월부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교육관 건립 계획조차 없는 제주박물관의 경우는 사회교육관이 완공이 되어야 만 전문인력의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원론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사회교육관의 건립은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교육전문 인력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 전문 인력을 갖춘 교육부서의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국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에는 별도의 교육부서가 존재한다.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교육 부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 이외에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 부서를 별도로 편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사무국과 학예연구실로 나뉘어진 1국 1실의 체제를 갖추고, 사무국 내에 섭외교육과를 운영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진행을 담당해왔으나, 2005년 10월 용산으로 새롭게 이전하면서 기획운영단, 학예연구실, 교육문화교류단으로 재구성하고 교육문화교류단 내에 종래 섭외교육과의 기능을 교육홍보팀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는 처음 개관할 당시 총무부, 시설관리부, 학예연구부만으로 구성되었던 체제에서 최근 학예연구부내 교육홍보과를 신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진행해나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는 사무국 아래 미술관정책과, 운영지원과, 교육홍보과가 있으며, 이와 독립된 학예연구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홍보과가 학예연구실과 전시관련 부서와 분리되어 사무국의 하위부서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은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활동은 행정이나 서무와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교육담당부서의 편제는 박물관 교육의 위상을 알려준다. 교육부서가 있는 극히 일부 경우에도 교육부서가 행정업무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홍보나 기타 행정업무까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타 부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교육전담 조직의 구성과 활동은 필수적이며,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확충되어야 하는 부분이다.⁵¹⁾

교육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획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

51) 김수운, 「사립박물관 교육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11~12.

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부서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⁵²⁾

현재 교육 전담 부서를 별도로 두어 체계적인 박물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미술관의 교육담당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주요 박물관·미술관 교육관련 부서현황⁵³⁾

구분	교육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국립 중앙박물관	교육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이동박물관 기획·운영 - 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 도서실 운영관리 	국립
서울 역사박물관	교육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종합계획 수립 - 교육교재 연구 및 개발 - 박물관·미술관 소식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 교육업무 	시립
국립 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 지역생활사박물관 미술관연계 교재개발 - 기획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야외체험 시설 운영 관리 	국립
국립 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및 미술관 홍보 - 작은미술관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미술관 운영 - e-미술관 운영 -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국립

52) 양지연,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제2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2, p.45.

위의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제주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제주박물관도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교육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과, 학예연구실로 이원화된 체제를 본격 개편하고 교육담당 부서를 갖추고, 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담당부서를 개설하여 어린이·가족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박물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박물관의 장소적, 기능적, 내용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상 관람객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철학을 담은 과정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건전한 여가 활용과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의 시행과 함께 붓물처럼 쏟아지는 일회성 체험행사와 문화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 제주박물관의 전시 성격과 개념을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고 관람객 계층의 대상별 요구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박물관은 박물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것이 마련된 후에는 박물관 교육의 철학과 목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나감으로써 교육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국외의 박물관·미술관들은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후원을 하고, 예술 기금이나 기업, 개인, 단체들이 활발히 후원을 하여, 자체에서 교육 부서를 운영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다른 구조의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자체에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수업 연계를 도모하여 박물관·미술관과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증가와 참여율을 높이고 있고, 교육시스템의 체계화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53) 문화관광부, 앞의 책, 2006, p.56.

국외의 경우 무엇보다도 국가와 기업, 개인들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후원과 함께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박물관·미술관 교육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인 “엄마·아빠와 박물관나들이”이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물과 관련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2~3학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주박물관의 여건상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 대상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외에도 연령별, 학년별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하여 각 학년, 연령과 학습 능력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펼쳐야 한다. 현재 국내의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된 인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어린이가 박물관을 방문할 때 주로 부모 또는 성인을 동반하게 됨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와의 상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과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 내야하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매체로 대두되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Web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야 한다. 전시물과 전시활동 등 박물관에서만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과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전 과정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각 지역 박물관·미술관들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어린이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전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어린이를 위한 계층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장품과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감상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웹(Web)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프로그램 연구소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교육 공간 확충 등 다양한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1) 통합적 감상 프로그램 개발

통합적 박물관 교육은 관람객이 전시물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얻는 단계를 넘어선다. 이는 전시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 생각,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관점과 전시 기획 의도에 따른 전시물 체험 활동을 연결시켜 자신을 표현하는 교육이다.

관람객이 박물관 교육의 목적과 개념, 이론 등을 박물관에서 체계화된 구조로서 접하게 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설립철학과 이념을 반영하면서 관람객에게 전시 중심의 박물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교육 전문 인력조차 충분하지 않은 국내 박물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은 능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로 남는다.⁵⁴⁾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는 어린이를 위한 통합적 감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54) 백 령, 앞의 책, pp.142~143.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하며, 연령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루 난이도를 갖춰야 한다. 먼저 표현활동과 연계한 통합적 감상 교육의 모형을 학습-감상-표현-토론 과정으로 설정하고, 교육담당자의 단계별 접근방법을 학습지도안 구성, 사전 학습 자료 개발, 감상활동지 개발, 감상활동, 표현활동, 토론활동, 교육평가의 7단계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감상-표현-토론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감상 교육의 수업모형은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감상 작품에 대한 지적 감상과 미적 감상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감상 작품에 대한 비평과 감상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나 감상주제에 따라 단계가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으나, 교육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진행되어야 한다. 이 수업모형의 특징은 단계별 활동이 분명하고, 감상활동지를 활용하여 감상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있다. 감상활동지는 감상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어린이들이 읽고 쓰기에 알맞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교사는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위한 보조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감상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담당자의 단계별 접근과정에 관한 것이다.

① 학습지도안 구성

학습지도안은 교육담당자의 감상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프로그램을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진행방향, 학습 진행의 형태에 걸맞는 지도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전 학습 자료의 개발

사전학습은 통합적 감상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전 단계로써 감상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감상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감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 전시물에 대한 기초 지식과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의 무조건적인 제시보다는 어린이들이 사전에 직접 찾아보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책자 혹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③ 감상활동지 개발

전시물 감상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내용과 전시물에 대한 감상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지를 통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 주요 감상품을 중심으로 전시물의 특징에 대한 개념설명과 전시물의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을 감상과 표현활동의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이나 설명문이 어렵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감상활동

감상활동은 뒤에 이어지는 표현활동을 고려하여 감상주제 및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 표현활동과 감상주제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간의 연계성이 모호해지게 된다. 사전학습, 감상활동지를 통한 감상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감상을 유도하게 되고 감상의 내용을 심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이 자발적인 감상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사는 지도해주어야 한다.

⑤ 표현활동

표현활동은 어린이들이 감상 작품의 제작기법이나 방식, 표현적 특성을 살려서 다시 새롭게 표현해보는 과정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하는 표현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표현활동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 제작과정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⑥ 토론활동

토론활동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표현활동의 의도, 기법, 느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⑦ 교육평가

교육담당자는 교육이 끝난 후 학습지도안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교육 평가를 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강사 상호간의 평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교사들 간의 회의를 통한 평가, 설문지 평가 등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하고, 이를 새로운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이 공공을 위한 박물관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할 대상은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박물관이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박물관 체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과제로 학교연계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학교 연계 및 사회연계 강화를 통한 박물관 활성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활동 시간과 문화탐방 형식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박물관 단체 관람과 문화답사가 늘고 있다. 귀중한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많은 학교가 박물관 견학을 선택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구하기 어려운 공감각적인 학습의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계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대개는 박물관의 견학을 계기로 해서 예술과 문화에 친숙해지려는 태도와 스스로 배우려는 마음을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중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람층이 다양한 박물관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를 하거나 관람을 위한 보조 교육재료를 갖추기는 아직까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박물관 관람의 효과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관람의 지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스스로 관심을 만들고 생각하고 찾아가면서 자신의 느낌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 감상을 위한 교육 방향이다.⁵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6년도 각급학교 현황 총괄⁵⁶⁾을 살펴보면, 제주도내 초등학교는 105개교, 중학교는 42개교, 고등학교는 30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효과적인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을 방문한 2006년도 11월 30일 기준의 관람객 현황을 분석해보

55) 홍경아, 「청소년의 박물관 관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조형교육』 제15권, 1999, p.373.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http://www.jje.go.kr>, 2006. 11. 1.

면, 전체관람객은 156,928명이고 초·중·고등학교 단체관람객은 38,557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 목적은 학기 중 현장학습, 학교 행사(춘·추계소풍) 등으로 교사를 동반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학교 단체 관람객의 방문 의도는 전시실의 유물을 관람하기 위함이나 국립제주 박물관에서는 전시 유물을 설명해주는 별도의 시스템은 없이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슨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견학인원에 비하여 전시실 안내를 감당할만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 설명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킨 전시실 관람과 문화 소외지역의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박물관으로의 현장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박물관에 도착하여 전시물을 관람하고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현장학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 측에서 각급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고, 학교 측은 무조건 많은 수의 학생을 관람시킴으로서 행사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위해 담당교사의 인솔 하에 학급단위의 박물관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박물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결과, 보다 많은 학교가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시범운영 자체로만 끝난데에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박물관 현장학습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박물관 측이 제공하는 교육 자료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전시실 관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초등학교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과 연계되고, 여러 관점으로 박물관의 전시물을 학습·감상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제주 박물관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방향은 첫째,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의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기존에 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전시실 교육 자료는 총 6권으로 제작되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및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판매율이 저조하며, 이용도 또한 높지 않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 교육 자료를 학교 및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방문자 스스로가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람 전에 사전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시실 소장 유물에 관한 강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사대상 강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 기관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교원연수”가 전부이다. 교원연수는 교사로서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박물관의 소장품 위주가 아닌 한국,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연계 전시실 관람 프로그램의 연계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와 함께 교사용 학습지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교육담당 기관의 협조를 얻는 일도 물론이거니와 이와 함께 학교 교육과 연관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영상자료는 2001년 개관과 함께 제작된 “자연과 역사의 섬 제주”이다. 이 영상자료는 관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나, 초등학교 단체 관람객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영상자료를 새로이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사를 중심으로 박물관 관람 전 박물관에 대해 사전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4년부터 시작된 국립제주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교실은 문화소외지역의 초·중학교를 찾아가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전통 문화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

하여 왔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생들에게 고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 배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전체에서 학급 단위별로 대상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도 교과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체험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 편성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져봄으로써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모형 유물과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과 그 방향은 초등학교에만 한정지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며,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하여 서술한 것이다. 학교 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이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3) 웹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박물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주요한 목적은 홍보에 있다. 실제로 가상의 방문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한 후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내·외 각 박물관·미술관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소장품 검색을 통해 전시물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고도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박물관 관람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우 및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박물관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특히,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박물관 전문가 및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학업성취도와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여 박물관 현장학습 전 사전 사후에 본 웹사이트를 활

용하여 박물관 현장학습에 대한 이해와 교육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관련 교과학습에서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상호 학습을 보완,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⁵⁷⁾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를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사이트맵(sitemap)

(2006년 11월 20일 현재)

구성부문	디렉토리
박물관안내	박물관 소개, 이용안내, 이설안내·대관, 새소식
전시	전시실소개, 공항 작은 박물관, 사이버박물관, 특별전
교육·행사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달의 행사, 자원봉사 안내, 포토갤러리, 대관행사
우리들마당	박물관에서 하는 일, 전시실 학습, 어린이 행사
자료마당	학술조사, 출판물, 보존처리, 소장도서, 도서수령증, VOD보기
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사이버민원, 메일링서비스, 나도한마디, 온라인예약, 자료실, 행정정보공개안내

위의 내용 중 교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에서 실제 박물관 관람의 효과를 주고 있는 <사이버박물관>,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과 문화행사의 소식들이 게재되어 있는 <교육·행사>, 어린이들이 쉽게 박물관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들마당>이 그것이다. <사이버박물관>은 가상 박물관 관람 이외에도 자세히 보고 싶은 유물을 클릭하여 유물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물을 3D로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 어려운

57) 김혜정, 「웹기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국립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20~27.

설명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교육·행사>에는 성인, 교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제공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우리들마당>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하는 일, 발간된 “박물관 전시실탐험” 교재의 내용을 주로 한 전시실 학습, 그리고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관련 자료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수동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학습에 이용할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와 능동적인 참여를 요할 수 있는 자료들은 게시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앞서 국외 사례에서 언급한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MoMA)은 5~12세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인 아트사파리(Art Safari)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과 조각을 탐구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유명 화가의 작품에 묘사된 동물에 대해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과 함께 탐색하도록 하여 감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주제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토의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보고 이를 감상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도구⁵⁸⁾를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웹상에 전시되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 게티센터(Getty center),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 Art), 영국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등이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외의 여러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박물관의 경우도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어린이들이 지식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통일해야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유물이 사용된 시대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각 유물의 사진과 설명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박물관 사전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사시

58) 컴퓨터 이용학습에서 일선교사가 자기의 교수방식을 교육용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대의 제주와 조선시대의 제주의 모습을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대별 생활·문화적 양상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물 정보 제공,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탐색해보는 사이버역사퀴즈, 제주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알아보고 사이버로 토기를 복원해 보는 프로그램, 전시실별 학습지 개발 및 제공, 관련 사이트 정보 제공, 실제 어린이가 큐레이터가 되어 나만의 새로운 전시를 기획해보는 프로그램 등 기존의 박물관 사이트에서 만날 수 없는 놀이와 재미 요소를 가미한 온라인 교육사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웹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매체가 보다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잠재된 각 매체의 특성과 학습내용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전문 연구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최근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실제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키다가도 교육담당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적 문제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잘 운영되어 오던 프로그램도 교육 전문 인력의 공백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박물관·미술관 전문교육기관이 새롭게 등장하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체 개발하거나 의뢰하여 개발·운영되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음은 앞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각 박물관·미술관에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비 등의 수익은 받을 수 없고, 단지 강사료만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운영, 강의까지 맡아 여러 사람의 몫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도 있으며 혹은, 장소 제공과 사무 협조 등만의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높은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여 박물관·미술관 공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민, 기업, 국가에서 빨리 인식

하여,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후원과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완전하게 만족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직 구조, 방법, 기술을 꾸준히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박물관·미술관이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면,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⁵⁹⁾ 국외의 경우처럼 박물관·미술관 건립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국내의 경우 무리가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는 박물관·미술관 자체 내에서 교육 부서를 따로 두고 운영되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력이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국내의 실정에 맞게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발전 시켜나가는 방법 모색과 함께 박물관·미술관 내에서도 점차 교육시스템의 구체화, 체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 전문 인력이 없는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을 외부 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는 전문연구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은 대부분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공자(민속학, 박물관학, 미술사학, 예술학, 사학)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박물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곡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일부 박물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1년 6월 개관이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국립제주박물관은 총 16회의

59) 케리 에드슨·데이비드 던 저, 이보아 역, 『21세기 박물관 경영』, 서울, 시공사, 2001, p.294.

크고 작은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특별전시는 상설전시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나 주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용이나 주제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며, 전시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⁶⁰⁾

특별전은 전시의 내용에 따라 짧은 기간동안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따라서 특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관람객들이 단순히 패널과 전시물을 통해 특별 전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보다 관람의 묘(妙)를 느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전주박물관의 경우, 2006년 7월 11일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개최했던 순회 특별전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3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정읍”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시실 탐험”이라는 학습지를 부모님용·어린이용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⁶¹⁾ 이외에도 기타 여러 박물관에서 이처럼 특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립전주박물관의 경우도 특별전을 교육적인 부분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로 인해 문화체험활동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이와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에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특정계층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장애 어린이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문화향유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일부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에서 장애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어린이들의 견학장소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60) 이영진, 석대권, 구자봉 編, 『박물관전시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p.112

61) 국립전주박물관 : <http://jeonju.museum.go.kr/sub02>, 2006. 11. 1.

현실이다. 그리고 제주박물관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일부 편의시설 외에는 점자 도록 발간이나 점자네임카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설명 등 전시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도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 되어야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적 복지의 중심축은 박물관이어야 한다.

제주지역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의 장애어린이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영지학교는 유치부를 포함하여 시각 3명, 청각 2명, 정신지체 12명, 지체부자유 15명, 재택순회⁶²⁾ 12명, 정서장애 29명으로 파악되며,⁶³⁾ 제주영송학교는 6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가 97명으로 단순장애, 중복장애, 다운증후군, 정서장애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⁶⁴⁾

장애의 분류가 다양하고 장애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요원(遙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차원의 접근이 단순히 전시실 관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각·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제주의 대표적인 유물 몇 가지를 선정하여 실물과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하고, 어린이들에게 유물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 당시의 유행, 시대적 사건과 행사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실제 적용시킬 교육내용으로 학습지도안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작 후에 어린이들의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제주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를 위한 민간단체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와 서귀포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다. 이 단체는 인권교육사업, 국제협력사업, 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이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200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2,645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절반이 이주노동자이고 약 25%가량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로

62) 재택순회교육은 그들의 장애조건이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체제이다.

63) 제주영지학교 : <http://www.youngji.sc.kr>, 2006. 11. 22.

64) 제주영송학교 : <http://www.youngsong.sc.kr>, 2006. 11. 22.

제주에도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⁵⁾ 현재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 참여 행사들로 구분되어 있으나,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접하기가 힘들다.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제주의 문화나아가 한국문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같은 입장에 있는 또래들과도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한국인 자녀가 함께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제주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등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박물관 중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

최근 들어 박물관 교육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고 많은 결과물과 성과를 쌓아가기 시작했으나 이에 따라 박물관 교육을 시작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박물관 교육 역량에 대한 편차는 앞으로 점점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 역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 박물관 등 여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비교적 활발히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과 비교할 때 역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연대문화사회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방안”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의 시민들이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문화프로그램들의 부재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재정의 부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모든 지역 문화시설

65)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http://www.fwcj.net>, 2006. 11. 20.

마다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인력과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일 것이다.⁶⁶⁾

특히, 박물관 교육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며, 박물관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역사에 대한 유물과 지식을 교류하여 질적으로 고양되고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단순히 정보만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우수 사례 발굴, 박물관 교육 관련 자치단체의 교육사업이나 담당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교환, 도슨트나 기타 박물관 교육 인력의 교육 등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동일 지역 내의 박물관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교 교사, 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타문화 기반시설, 박물관과 지자체의 관련부서 등과 함께 다층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박물관 관련 전공학과는 국립제주대학교 사학과가 전부이며, 박물관학·미술사학 관련 학과가 없는 관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학생 및 교육 현장의 교사, 타 학교의 아동미술과 등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결성이 있는 학과의 졸업생들을 위주로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야 한다. 교육 행정/관리자 박물관 연수, 학부모 연수 또한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와 박물관의 연계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는 인근에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우당도서관의 연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현재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

66) 류병희,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문화시설의 초등학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제안 및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0.

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의 일환인 “방과 후아카데미”⁶⁷⁾를 2006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 후 학원이나 공부방 등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은 물론이고 풍물, 과학놀이, 미술놀이 등 특기적성교육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당도서관은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영화상영과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개 기관이 공동 기획한 테마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회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특히 도서관과 연계하여 옛 고문서 만들기, 제주의 역사와 문화 팝업북 만들기 등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관련된 어린이용 도서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고구려의 상징적인 문화인 벽화를 공동으로 제작해보는 체험프로그램,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대변해주는 비경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생태체험,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고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어린이들이 발굴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발굴체험 등의 기획도 가능하다. 그리고 박물관과 사라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 주변 역사유적지를 답사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의 향토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도하는 등 향토사연구의 중심에 서야 한다.

4) 우수강사 발굴 및 DB구축

박물관 교육 전문 인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이 소장품과 각종 자원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고, 교육 관련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에듀케이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박물관 교육의 수행에는 에듀케이터 외에 다양한 유형의 인력들이 참여하게 된다. 박물관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과 강좌에서 학습자

67)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제주시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서귀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대정읍 청소년 수련관, 성산읍 신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들에게 직접 교수 활동을 수행하는 강사들과 박물관 교육 업무를 견습하고 보조하는 인턴, 다양한 계층의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을 진행하는 도슨트 등을 들 수 있다. 비영리 박물관의 특성상, 내부의 유급 인력인 에듀케이터 외에도, 대부분 무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과 도슨트 역시 박물관 교육의 실행과 확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인력으로서 최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다. 또한 이들 간의 경력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고, 현재 국내에 에듀케이터의 당위적 역할과 전문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에듀케이터 외의 교육 관련 인력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⁸⁾

에듀케이터가 직접 교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에듀케이터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에듀케이터 상(像)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나, 국내의 경우 교육담당자가 교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보다 기획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교육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담당자가 박물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물관 에듀케이터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에듀케이터가 모든 대상층의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⁶⁹⁾

이에 따라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인력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이다. 강사는 박물관의 교육담당자와 협의하여 기획된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수행한다. 관련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에듀케이터와의 차이점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편이지만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실제적인 경력사항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는 일반 성인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대부분 대학교수, 학자, 예술가, 학예사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섭외되며,

68) 문화관광부, 앞의 책, 2006, p.63.

69) 문화관광부, 앞의 책, 2006, p.64.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도예, 회화, 사진, 공예 등 해당분야의 현직 작가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주제에 대한 역사·문화적 전문지식, 풍부한 교수경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학습 성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제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전문 지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강사는 체험활동에 비중 있게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미술관 교육 강사들의 경우 때때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의 과정에서부터 참가하여 교육활동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개는 풍부한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을 이해하여 관람객들에게 전달, 학습, 공유할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박물관의 교육 강사들도 참여시켜 박물관의 유물과 전시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활용해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수학습능력을 지닌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나감으로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5) 전문 교육 공간 확충

앞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현황에서 나타나듯 제주박물관의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점차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1992년에 착공하여 공사 완료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시설 건립 초기에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설 및 기자재들이 미비된 부분들이 비교적 많다.

제주박물관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시실내 상설체험코너인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은 약 8평 정도의 적은 공간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

는 규모이다. 체험코너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단체 관람객들에게 비교적 인기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간은 전시실 동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전시실의 관람 동선에 연계되는 보다 큰 규모의 장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2006년 9월까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성인용 교육시설인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져왔으며, 2006년 10월 체험관 “어린이올레”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용 가능 인원이 최대 3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좀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비좁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립제주박물관이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사회교육관 건립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회교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체험 공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 성인계층을 위한 교육 공간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국립제주박물관의 중장기 목표와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IV. 결 론

급속도로 변모하는 환경과 더불어 박물관의 교육환경도 변화되어야 한다. 20세기의 박물관이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와 보존에만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1세기의 박물관은 ‘체험’을 중심으로 그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인 전시, 교육, 문화 행사 등이 활발한 다목적적·다문화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에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의 박물관·미술관의 현황과 비교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외의 경우는 전문 교육 부서를 통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성을 가지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전시실과 교육시설을 연결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박물관 학습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일부 박물관만이 교육담당 부서, 교육 전문 인력 확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인력부족, 재정적 문제, 열악한 시설 문제와 함께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재정적인 문제와 교육시설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교육담당 부서의 설립과 이에 따른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역시 교육 전문 인력 및 교육 전문 부서의 부재로 인해 어린이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유일한 고고·역사박물관으로써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촉매제 역할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교육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교육 전문 부서 설립을 통한 교육 전문 시스템의 구축, 소장품과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감상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계층별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박물관 중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우수 강사 발굴 및 DB구축, 어린이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 교육 공간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그 대상의 요구와 조건에 적합한 내용,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대상의 연령과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차별화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전문 인력이 지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 및 시설,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시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조속히 보완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룬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로써가 아니라 향후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과정을 거쳐나감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현행되고 있는 어린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성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박물관학교 만들기』, 서울, 문음사, 1997.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보』 제13호, 2005.
-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학교 40년 :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교실』, 1994.
- 국립제주박물관, 『개관5년사』, 2006.
- ,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김지화·정지웅,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김현숙, 『미술관과 소통』, 서울, 예경, 2001.
- 박물관 교육철학회 篇,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2001.
- 백 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 예경, 2005.
- 백승길, 『오픈 뮤지엄 프로그램』, 서울, 정음사, 1998.
- 문화관광부,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연구』, 2006.
- 삼성재단 호암미술관, 『해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구(I,II)』, 1995.
- 세계박물관협회 篇, 하태환 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서울, 궁리, 200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박물관과 국제이해교육』, 오름, 1999.
- , 『박물관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오름, 1999.
- 이규선·김동영·전성수,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 이난영,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2001.
-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2000.
- 이은미, 『한국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의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2.
- 이영진, 석대권, 구자봉 編, 『박물관전시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 이현구, 『박물관에서 꺼내온 철학이야기』, 서울, 우리교육, 2003.
- 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서울, 살림, 2004.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 박물관·미술관 조사 보고서』, 1994.
- _____, 『국립지방박물관 증장기 발전방안』, 2000.
- _____, 『국립중앙박물관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1.
- 오즈카 카즈요시 著, 홍중필 譯, 『박물관학Ⅱ- 현대사회와 박물관』, 서울, 학연문화사, 2001.
- Daniele Giraudy·Henry Bouilhet 著, 김혜경 譯,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화산문화, 1996.
- David Finn(데이비드 핀) 著, 정준모 譯, 『알기쉬운 미술관 관람의 길라잡이』, 서울, 시공사, 2004.
- Neil Kotler·Philip Kotler 著, 한중호·이혜지 譯,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 경영과 전략』, 서울, 박영사, 2005.
- 티모시 엠브로즈·크리스틴 페인 篇, 이보아 譯, 『실무자를 위한 박물관 경영 핸드북』, 서울, 학교재, 2001.
- Hooper-Greenhill, Eilean,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London:Routledg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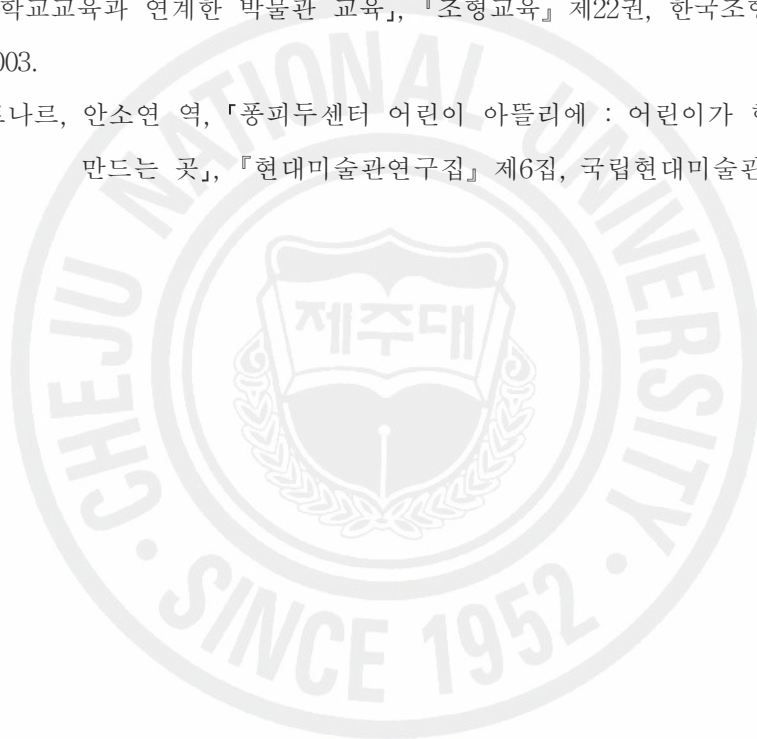
2. 논문

- 강수정, 「어린이미술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현대미술연구』 제10집, 1999.
- 국성하,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교육사학과, 2003.

- 길병원, 「초등사회과 역사 영역의 교육박물관 학습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동진,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0.
- 김명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개발에 관한 연구 :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미겸, 「박물관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역사학습의 현황과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수윤, 「사립박물관 교육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호, 서울, 재원, 1998.
- 김은희,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인희, 「박물관 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박물관과 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7.
- 김종혁, 「한국의 박물관과 세계의 박물관」, 『문화예술』 163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 김혜정, 「웹기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국립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나선화, 「중등학교·대학교의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문화개방과 문화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8.
- 류병희,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문화시설의 초등학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제안 및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인순, 「박물관 체험학습을 통한 초등학생 문화재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서명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손기연, 「박물관 유형에 따른 복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제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양지연,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제2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2.
- _____, 「사회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미술관」, 『월간미술』 제8권 1호, 중앙일보사, 1996.
- 오상현,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교육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평가-2001년 초등학생 4,5,6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미지, 「박물관·미술관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운선,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은미, 「일본의 박물관 교육 정책과 동향」, 『연세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02.
- 이정란,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교육시스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태호, 「현단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 : 국립박물관의 전시 행위와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문화 교육적 기능』,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장 엽, 「미술관교육 그 존재의 이유」, 『미술관소식』 제33호, 국립현대미술관, 1998.
- 장혜승, 「평생학습으로서의 박물관 교육과 E-mentoring」,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광중, 「초등사회과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제주시 화북마을을 사례로」, 『초등사회과교육』 제11집, 1999.
- 정미란, 「미술관과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인자, 「초등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2001.
- 최은영, 「미술관 교육과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최정희, 「미술관과 미술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현황분석과 개발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홍경아, 「청소년의 박물관 관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조형교육』 제15권, 한국조형교육학회, 1999.
- _____, 「학교교육과 연계한 박물관 교육」, 『조형교육』 제22권, 한국조형교육학회, 2003.
- 가엘 베르나르, 안소연 역,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뜰리에 : 어린이가 현대미술을 만드는 곳」, 『현대미술관연구집』 제6집, 국립현대미술관,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 of Museum Education for the
Children
: Focusing on Children's Education Program at Jeju National
Museum**

Han, Ji-yoo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Today, the museum has been changed from the 'exhibition-oriented' concept through its collections and exhibits to the concept of 'experience' and 'education' that would satisfy the five senses of visitors by direct touching and feeling. In some developed countries, museum education has been a widely accepted phenomenon and they have had about 100 years to do so; however, it has been about 10 years to conduct museum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some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there have recently bee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from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Thanks to the 5-day work week, people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the utilization of weekend spare time and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visited cultural art organizations such as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their interest in education and cultural events operated by museums and art gallerie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a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useum education for children that could enhance their critical thinking ability, visual

* A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7.

& cognitive ability, and their understanding on our history and culture among the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s that have been held for various classes of people. Through the educational ideology appropriate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al depart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ampl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at activated children's education and attempted to use their results as the data for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activation methods of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s in Jeju National Museum and the archeological & historical museums in Jeju area.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methods of activating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s in Jeju National Museum were suggested as in the following.

First, for Jeju National Museum that has currently the dualistic department structure with management division and curatorial office, it would be urgent to arrange an additional education department and build up an appropriate educational system through the allocation of professional staff educators for museum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Second, the current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 of Jeju National Museum has been operated in a relatively limited way due to the absence of professional staff as mentioned above.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other areas have been very diverse and consistently developed and the attempt to settl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has been made and the situations have been somewhat different from Jeju area. In order to narrow such differences and provide more children with th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learn history and culture through museum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such as the integrated appreciation program utilizing museum's collection and exhibit, school-linked program, web-based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program linked with professional education research center and special exhibition, educational program for alienated class, etc.

Third, Jeju National Museum should be the center for developing regional culture and needs to exchange educational information through organic networks with culture-based facilities such as museums, art galleries, schools and libraries in Jeju; in doing so, it should find out methods to enhance the

opportunities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with various themes and forms for more people in Jeju.

Fourth,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that could educate lecturers with teaching & learning ability appropriate to children. The museum should play a main role in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other than the educators who are suppos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it would be also important to build up the database that could manage them systematically.

Fifth, it would be important to ensure the space for professional education that could gradually expand exhibitions and space for children and accommodate educations with various classes such as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as well as children to comply with visitors' various demands. In order to conduct this, it would be urgently necessary to make efforts such as ensuring the appropriate accommodation for social education center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long with national museums and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methods to activate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in Jeju National Museum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s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methods will be reflected appropriately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s for children in Jeju National Museum and its application process in the future.